

**붙임 1****'20년 3월 화재발생 현황분석 (김포소방서)**□ **총괄분석 요약**

- '20년 3월 화재출동 건수는 199건으로 전년·월 217건 대비하여 18건 (-8.3%)이 감소하였고, 피해건수는 54건으로 전년·월 59건 대비하여 5건(-8.5%) 감소하였으며, 피해액은 222,774천원으로 전년·월 2,366,783천원 대비하여 2,144,009원(-90.6%)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화재세부내역 분석**○ **총괄현황**

구 분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출동	피해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2019년 3월	217	59	1	-	1	2,366,783	807,676	1,559,107
2020년 3월	199	54	4	-	4	222,774	117,616	105,158
증감	-8.3%	-8.5%	300%	-	300%	-90.6%	-85.4%	-93.3%

○ **장소별**

구 분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철도	위험물 제조소 등	임야	기타
2019년 3월	59	8	17	3	-	2	29
2020년 3월	54	6	21	2	-	1	24
증감	-8.5%	-25%	23.5%	-33.3	-	-50%	-17.2

○ **원인별**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교통사고	자연적	화학적	가스	미상	기타
2019년 3월	59	35	16	5	-	-	-	1	-	1	1
2020년 3월	54	36	8	6	-	-	-	1	-	3	-
증감	-8.5%	2.9%	-50%	20%	-	-	-	-	-	200%	-100%

- 부주의 화재 36건 중 담뱃불이 12건(33.3%)으로 2월과 마찬가지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월 대비하여 전기적 요인 화재는 8건으로 8건(-50%)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소방서별 화재 발생내역(1분기 누계)

순	구분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1	화성소방서	152	9	2	7	3,817,208	2,577,881	1,239,327
2	용인소방서	126	8	-	8	2,104,954	995,667	1,109,287
3	안산소방서	125	11	-	11	1,622,959	808,658	814,301
4	남양주소방서	124	4	1	3	4,147,829	1,318,083	2,829,746
5	파주소방서	113	3	1	2	3,343,927	1,347,164	1,996,763
6	<b>김포소방서</b>	<b>109</b>	<b>5</b>	<b>-</b>	<b>5</b>	<b>1,263,005</b>	<b>644,907</b>	<b>618,098</b>
7	부천소방서	102	8	2	6	1,000,540	365,143	635,397
8	시흥소방서	97	9	2	7	2,059,897	738,738	1,321,159
9	광주소방서	96	2	-	2	3,264,166	1,360,360	1,903,806
10	포천소방서	82	9	1	8	2,690,466	1,277,101	1,413,365
11	양주소방서	78	6	1	5	2,401,397	944,360	1,457,037
12	안양소방서	77	5	-	5	274,488	131,142	143,346
13	안성소방서	77	1	-	1	1,284,251	416,346	867,905
14	일산소방서	75	3	-	3	2,665,699	706,756	1,958,943
15	수원소방서	74	-	-	-	228,133	87,732	140,401
16	이천소방서	73	2	1	1	945,354	438,160	507,194
17	고양소방서	72	5	-	5	1,024,310	264,516	759,794
18	평택소방서	69	1	-	1	1,715,985	751,722	964,263
19	송탄소방서	68	2	-	2	1,133,199	722,753	410,446
20	여주소방서	65	1	-	1	699,344	257,851	441,493
21	수원남부소방서	63	12	1	11	933,131	555,068	378,063
22	성남소방서	62	6	-	6	192,767	67,344	125,423
23	양평소방서	61	1	1	-	487,971	277,589	210,382
24	의정부소방서	53	2	-	2	580,652	110,119	470,533
25	가평소방서	46	5	-	5	199,232	87,730	111,502
26	광명소방서	42	1	-	1	225,295	78,560	146,735
27	분당소방서	41	1	1	-	108,842	33,617	75,225
28	하남소방서	35	3	1	2	525,615	297,555	228,060
29	연천소방서	35	4	3	1	674,740	276,969	397,771
30	군포소방서	31	2	1	1	118,342	22,268	96,074
31	구리소방서	29	1	-	1	272,451	98,256	174,195
32	의왕소방서	27	2	-	2	48,674	25,209	23,465
33	동두천소방서	27	-	-	-	703,567	343,263	360,304
34	오산소방서	25	1	-	1	908,042	252,673	655,369
35	과천소방서	7	-	-	-	6,682	760	5,922

## □ 센터별 화재발생 내역(3월)

순	구분	화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1	중앙119안전센터	9	0	0	0	49,321	22,371	26,950
2	통진119안전센터	11	0	0	0	32,139	24,018	8,121
3	양촌119안전센터	5	2	0	2	17,499	3,193	14,306
4	고촌119안전센터	2	0	0	0	1,999	195	1,804
5	하성119안전센터	3	0	0	0	6,574	1,124	5,450
6	대곶119안전센터	18	2	0	2	101,908	57,312	44,596
7	마산119안전센터	6	0	0	0	13,334	9,403	3,931
	합계	54	4	0	4	222,774	117,616	105,158

※ 진행 중인 화재가 있어 수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화재발생 통계분석 활용실적

- 화재예방대책 자료제공 및 활용
- 일일 화재통계(일보) 및 대외 활동 통계 작성

## 김포소방서, 장기동 아파트 화재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막아



김포소방서(서장 권용한)가 지난 12일 밤 9시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아파트 화재에서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화재가 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2일 밤 9시경 화재 발생 가구 거주자가 신고를 하면서 김포소방서에 접수되었다. 거주자에 의하면 주방으로 가던 중 베란다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서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불길과 연기가 보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포소방서 화재진압대와 구조대는 현장도착과 동시에 현장으로 진입하여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옥상으로 대피한 수십여 명 사람들을 대

피시키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였다. 이 결과 불길이 번지지 않아 대형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단순연기 흡입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 7명 외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은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소방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주변 가구까지 불길이 번졌으면 대형 화재가 될 뻔 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언제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포 = 조이호 기자

HOME / 뉴스 / 사회·재난사고

## 장기동 아파트서 12일 밤 화재 발생

소방서 신속 대응으로 10분만에 화재 진압, 인명 피해 없어

김주현 기자 | 승인 2020.03.13 10:06 | 댓글 0



장기동 소재 아파트에서 지난 12일 밤 9시경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김포소방서가 10분만에 화재를 진압, 옥상으로 대피한 수십여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대응으로 대형 화재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단순연기 흡입으로 7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 12일 밤 9시경, 화재 발생 가구의 거주자는 베란다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 베란다 문을 열고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불길을 확인했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김포소방서 화재진압대 및 구조대는 현장도착과 동시에 현장으로 진입, 10분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을 했다.

인근 주민은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소방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해서 다행이었다. 주변 가구까지 불길이 번졌으면 대형화재가 될 뻔 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 3.12. 장기동 초당마을 아파트 화재 관련 언론보도

### 김포소방서, 장기동 아파트 화재 발빠른 대처

김포소방서(서장 권용한)가 지난 13일 밤 9시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아파트 화재에서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3일 밤 9시경 화재 발생 가구 거주자가 신고를 하면서 김포소방서에 접수되었다. 거주자에 의하면 주방으로 가던 중 베란다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서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불길의 보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포소방서 화재진압대와 구조대는 현장도착과 동시에 현장으로 진입하여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옥상으로 대피한 수십여 명 사람들을 대피 시키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였다. 이 결과 불길이 번지지 않아 대형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단순연기 흡입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 7명 외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은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소방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주변 가구까지 불길이 번졌으면 대형화재가 될 뻔 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언제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홍순인 기자

#### 3.12. 장기동 초당마을 아파트 화재 관련 언론보도